

다문화 TV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들의 '러브인 아시아' 프로그램 시청을 중심으로 한 통제집단 사후설계실험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The Effect of Multi-cultural TV Program on the Viewers' Perception of Migrant Women : 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Centered on University Students' Viewing of the 'Love in Asia' Program

Hong, Sook-Yeong*

Dept. of Media and Imag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TV 프로그램인 '러브인 아시아'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통제집단사후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 '이주여성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주여성은 독립심이 강하다'는 항목들에 대해 전문직 이주여성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와 비전문직 이주여성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직업적 전문성 유무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그룹의 자문시스템 구축 및 결혼이주여성의 다양성 보장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직업적 전문성, 수용자 인식, 다문화 TV 프로그램, 러브인 아시아

Abstract This research sought to study viewers' perception of migrant women who wed Korean men following these women's level of specialty as shown on multi-cultural TV program by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method was utilized to conduct analysis, which demonstrate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iewers on the professional migrant women and on the non-professional migrant women when it comes to the categories such as, 'Migrant women have specialized skills', 'migrant women have outstanding communication skills' and 'migrant women are independent minded.' Because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professional careers as shown on TV program can affect viewers' perception of migrant women,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such as development of expert group's advising system and to guarantee migrant women's diversity.

Key Words : Migrant women, Occupational specialty, Viewers' perception, multi-cultural TV program, Love in Asia

* 본 논문은 한세대학교의 교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ceived 8 June 2013, Revised 28 June 2013

Accepted 20 July 2013

Author: Sook Yeong Hong(Dept of Media and Image, Hansei University)

Email: marylou@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오늘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개인적 역량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면서 다양성의 공존은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40만 명이 넘으며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8%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의 수는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한편 결혼이주 여성의 수는 2011년 2만2천265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이 아시아국가 여성들이므로 나타났다[2]. 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가정을 이루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편견의 고착화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은 편협하며 온정주의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쌍방 문화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대한 이주민의 일방향적 적응을 강조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다문화 TV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에서 찾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인정을 통해 통합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TV 콘텐츠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것이다.

2. 기존 문헌 고찰

2.1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왔고, 이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이나 담론을 분석하거나 외국인의 한국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의 다문

화 현상을 고찰한 연구[3], TV다큐멘터리의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분석한 연구[4], 영어권 외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5],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6].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나 확산을 통한 문화 다양성의 증대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결혼 이민 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를 고찰한 연구[7], 다문화 TV프로그램의 시청동기를 조사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8]

최근 들어 다문화관련 연구들은 보다 세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적응 또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토착민의 다문화 수용이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정연구 등은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주여성과의 접촉 빈도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는데 이주여성과 자주 접촉할수록 관련 뉴스에 더 많이 노출되며 긍정적인 뉴스를 잘 기억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약할 뿐 아니라 문화교류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9] 임도경과 김창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조사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공포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10]

장임숙과 이원일은 다문화인식이 정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는데,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이주노동자의 송환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 다문화교육 여부, 정치적 신뢰 수준,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등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제한적으로 이주인권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11]. 윤상우·김상돈은 사회적 가치관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높은 친밀도를 지니고 있으나 이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진보적 정치성향은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 유교적 가치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2].

2.2 문화배양 이론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다문화 담론, 이주민의 적응, 수용자의 인식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실험연구를 통해 TV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TV프로그램의 수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수용자의 교육 정도나 TV시청 분량, 문화적 역량 등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슷한 교육 수준을 지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TV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 전문성 유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는 것으로 거브너의 문화배양 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배양 이론은 TV에 나타난 상징체계가 시청자들의 실제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배양한다는 것으로 미디어에서 전해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메시지 시스템은 정보를 전할 뿐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13]. 이 이론은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내용을 통해 시청자들이 스스로가 누구이며, 어떻게 타인들이나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 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TV를 반복적으로 시청할 경우 시청자들은 TV의 재현을 마치 현실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14].

각종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실제 접하지 않은 세계나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념을 갖게 되며 이러한 관념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 편견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기대가 지나칠 경우 이상화로 흐르게 될 위험도 있다. 즉 현실과 거리가 먼 새로운 개념이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TV는 이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해 특정한 시각을 형성하게 하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우리의 “시각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거브너와 그로스는 특히 TV가 사람들이 지닌 기존 개념들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TV프로그램의 상징적 체계는 현실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를 통해 폭력적인 내용을 접하게 될 경우 실제 세계에서의 상황보다 훨씬 더 과장된 위험이나 공포를 현실로 간주하게 될 수 있다[15].

문화배양이론은 TV의 폭력물이나 선정성 등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 이론을

토대로 TV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청자들이 TV를 통해 직업적 전문성을 지닌 결혼이주여성을 접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해 편견이 고착화되지 않고 전문성이나 책임감을 인정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온정주의적 시각이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형성하게 된 인간과 환경에 대한 개념들의 적지 않은 부분은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이처럼 “미디어에 의한 메시지 시스템”은 태도, 기회, 선호 등에 관해 일종의 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시스템과 상징적 기능이 삶과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배양시키도록 하는데 기여한다[13]. 미디어가 ‘결혼이주여성’을 콘텐츠에 담아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이들에 대해 수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부정적인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배양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일환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TV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험 연구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들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내국인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이주여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본 후

통제집단 (비전문직 여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과 실험집단 (전문직 여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통제집단 사후실험 설계

통제집단 사후실험 설계의 단점은 실험 결과에 대한 사전 측정이 없기 때문에 실험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현상이 사전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실험 설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실험대상으로도 실험이 가능하고 집단 간 격리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간 비교 실험을 한 원시실험 설계의 집단비교설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49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주일 뒤 임의로 그룹을 나누어 A그룹 실험집단 26명과 B그룹 통제집단 23명을 선정하였다. 각각 다른 강의실에서 실험집단에는 전문직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통제집단에는 비전문직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다시 일주일 뒤 경과한 뒤 A그룹 실험집단과 B그룹 통제 집단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사이에 총 2주간의 시차가 나도록 설계하였다.

3.2.2 설문조사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12일 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묻는 프리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학식·임지훈[17], 안신호 외[18]의 연구에 기초하여 전영자·전예화[19]가 개발한 13개의 감정문항을 참조하여 9개의 일반적 인식 항목을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이주여성의 전문 기술 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1. 이주여성은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
2. 이주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한다.
3. 이주여성은 시댁식구와 화합하며 잘 지낸다.
4. 이주여성은 출산 능력이 있다.
5. 이주여성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6. 이주여성은 외모가 뛰어나다.
7.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8. 이주여성은 친화력이 있다.
9. 가정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10. 이주여성은 독립심이 강하다.

설계한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 =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2.3 실험대상 프로그램

실험집단 A그룹의 실험대상 프로그램은 2012년 3월 20일 방영된 KBS2TV '러브인 아시아'의 311회, '백의의 천사 리첼의 그리운 얼굴'편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어려운 기계를 잘 다루고 한국말도 능숙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리첼이 등장한다. 12년 전 한국으로 건너온 리첼은 가사와 양육, 내조에 나무랄 것 없으며 서울의 한 병원에서 4년째 근무하며 수술실 간호사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통제집단 B그룹은 2011년 11월 22일 방송된 KBS2TV '러브인 아시아' 295회 '필리핀택 진노라의 행복 만들기'편으로 여양진씨 28대 중부로 아들을 키우며 한국 며느리로 살아가는 노라가 동네에서 파트 타이머로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모아 필리핀에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4. 분석결과

4.1 실험물 조작점검

응답자들이 연구 모형의 설계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을 만들어 시청한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내용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1. 이주여성은 전문직에 종사한다.
2. 이주여성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
3. 이주여성은 생계를 분담한다.
4. 이주여성의 수입은 보조적 수단이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1번과 3번 항목에 체크를 하고 통제집단은 2번과 4번에 체크를 하여 실험에 참가한 응답자들이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관한 조사를 100%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일반적 인식

연구결과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전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Table 1> Perception of immigrant women in Korea

Item	N
professional skill	2.98
rearing of children	3.71
harmonization with in-laws	3.13
generability	4.10
communication skill	2.60
appearance	3.07
adaptability to Korean society	2.80
sociability	4.50
equal position	2.54
independence	3.08

4.3 연구가설 2-1 검증

<Table 2> Research Hypothesis 2-1.Comparison of perception toward immigrant women between control group and test group (Before watching TV program)

item	group	N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level
professional skill	control group	3.04 (23)	1.42	.287	.775
	test group	2.92 (26)	1.49		
rearing of children	control group	3.34	.83	-.805	.425
	test group	3.61	1.38		
harmonization with in-laws	control group	3.04	.76	-.732	.468
	test group	3.23	.99		
generability	control group	4.17	.49	.610	.545
	test group	4.03	.95		

communication skill	control group	2.52	.79	-.652	.518
	test group	2.69	1.01		
appearance	control group	3.04	1.10	-.219	.827
	test group	3.11	1.17		
adaptability to Korean society	control group	2.65	.93	-1.141	.260
	test group	2.96	.95		
sociability	control group	2.91	.94	-.929	.358
	test group	3.19	1.13		
equal position	control group	2.43	1.07	-.542	.590
	test group	2.65	1.64		
independence	control group	2.78	1.08	-1.572	.123
	test group	3.38	1.52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 자녀양육, 시택식구와의 화합, 출산능력, 의사소통 능력, 외모, 사회적응력, 친화력, 동등한 지위, 독립심 항목에 있어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이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실험조사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보기 이전에 내국인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1이 검증되었다.

4.4 연구가설 2-2 검증

<Table 3> Research Hypothesis 2-1.Comparison of perception toward immigrant women between control group and test group (After watching TV program)

item	group	N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level
professional skill	control group	2.65 (23)	.93	.287	.009
	test group	3.34 (26)	.84		
rearing of children	control group	3.69	1.06	-.805	.990
	test group	3.69	.73		
harmonization with in-laws	control group	3.40	1.09	-.732	.536
	test group	3.57	.75		

generability	control group	4.21	.79	.610	.036
	test group	3.73	.77		
communication skill	control group	2.47	.66	-.652	.000
	test group	3.34	.89		
appearance	control group	2.78	.90	-.219	.089
	test group	3.19	.74		
adaptability to Korean society	control group	3.13	.96	-1.141	.421
	test group	3.34	.89		
sociability	control group	3.13	.69	-.929	.199
	test group	3.42	.85		
equal position	control group	2.65	.93	-.542	.072
	test group	3.15	.96		
independence	control group	2.73	.96	-1.572	.011
	test group	3.50	1.02		

연구결과 비전문직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통제집단에 비해 전문직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실험집단이 결혼이주여성의 전문 기술 보유 항목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 능력의 경우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능력과 독립심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구문제 1의 결과와 비교할 때 실험집단은 사전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독립성에 있어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평가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출산능력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었으며, 그 외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독립성 항목은 일반적인 인식의 평균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수용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문성에 대해 인정하는 반면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수용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능력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TV 콘텐츠가 대학생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독립심, 전문기술 보유, 소통 능력 항목들에 대해 전문직 이주여성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을 본 응답자와 비전문직 이주여성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전문직 이주여성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수용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능력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정관념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편견으로 고착화되는데 있어 TV프로그램이 현실의 재현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온정주의적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가부장제 하에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하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출산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언어적·문화적·정서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출산과 양육, 가사라는 과도한 책임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본 연구는 조작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례 연구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수용자들이 인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괴리를 비교한다면 보다 현실에 근접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도입한 문화배양 이론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개인들의 기호 혹은 성향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개별 인터뷰가 병행된다면 보다 양질의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수용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정보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 TV 프로그램은 중요한 원천소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거브너는 폭력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TV를 통한 재현이 시청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문

화자산과 문화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에 공중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14].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온정주의적 시각이 형성되는 원인은 교육이나 환경, 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다문화 TV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 전문성과 비전문성에 따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 등장하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통합에 구속이 되는 불필요한 편견을 사전에 방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Hansei University in 2013.

REFERENCES

- [1] Hee-Bok W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urpassed 1.4 million peop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art_view.html?artid=201208092243275&code=940100, 2012
- [2] Tae-Jong Kim Vietnamese occupy most immigrant women in Korea, <http://www.app.yonhapnews.co.kr>. 2012.
- [3] Kyuon-Hee Moon Making Multicultural Korea : Can multicultural politics help foreign brides to fully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Th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6, No 3, pp.67-93. 2006.
- [4] Ji-A Hong, Hun-Sun Kim, The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 Analysis of TV documentary Human Theater,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Vol.24, No.5, pp.544-583. 2010.
- [5] Chang-Hwan Jo, Yun-Hui Seong,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Ethnic Affinity : Focus on English-speaking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54, No.4, pp.374-397, 436. 2010.
- [6] Sun-Hye Hong, Suk-Yeong Lee, Seon-Hwa Kim, Follow-up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Adataption to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62, No.1, pp.343-365. 2010.
- [7] In-Suk Nam, Hun-Seok Jang, Special Issue : Multicultural Age and Social Ethics :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Native Countr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Families Social Theory, Vol.35, pp7-29, 2009.
- [8] Sun-Nam Kim, Sook-Yeong Hong, A Study on the Audience's Motivation to Watch TV Programs Dealing with Multi-cultural Materials: Focusing on "Talks of the Beauty",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Vol.18, pp.41-55, 2009
- [9] Yeon-Gu Jeong, Hyeon-Ju, Song, Tae-Il, Yun, Hun Sim, The Effect of Media Stereotyping of Immigrants On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55, No.2, pp.405-427, 2011.
- [10] Do-Kyung Lim, Chang-Sook Kim,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ntecedent Factors: Focusing on Social Distance, Image of Foreign Residents, and Qualifications for being a Korean, Communication Research, Vol.19, No.1 pp.5-30. 2011.
- [11] Im-Sook Jang, Won-Il Le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Migrant Human Rights Policy of University students, Local Government Research, Vol.15, No.4, pp.177-199, 2011.
- [12] Sang-Woo Yoon, Sang-Don Kim,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1 pp.91-117, 2010.

- [13] G. Gerbner, Mass media policies in changing cultures. John Wiley-Sons. NY. 1977.
- [14] G. Gerbner, The hidden side of television violence. Invisible crises: What conglomerate control of media means for America and the world, pp.27-34. 1996.
- [15] G. Gerbner, & L. Gross, The scary world of TV's heavy viewer. Psychology today, 9(11), pp.41-45. 1976.
- [16] Hoon-Young Lee, Marketing Research, Chungram, 2005.
- [17] Hak-Sik Lee, Ji-Hoon Lim, Measuring the Consumption - Related Emotion Construct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Vol.17, No.3, pp.55-91, 2002.
- [18] Sin-Ho An, Sung-Hye Lee, O-Sik Kwon, Structure of Emotion, Analyse of Korean emotional words,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Vol.7, No.1, pp.107-123, 1993.
- [19] Young-Ja Jeon, Ye-Hwa Jeon, Influences of Stereotypes and Emotion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on Social Distanc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19, No.1, pp.1-13, 2010.

홍 숙 영(Hong, Sook-Yeong)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1996년 10월 : 프랑스 국립 파리2 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 2002년 10월 : 프랑스 국립 파리2대학교 언론대학원 (DEA)
- 2007년 2월 : 프랑스 국립 파리2대학교 언론대학원 (박사)

- 2007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미디어 콘텐츠 분석
- E-Mail: marylou@naver.com